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Mi-Sook Park*, Mi-Jin You**

*Professor, Dept. of Nurs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Jeungpyeong, Korea

**Associate Professor, Dept. of Nursing, ChungCheong University, Cheo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Participants consisted of 234 nursing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over one semester at one university located in C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nurse imag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Data were analyzed using mean,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rough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9.0 program.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nurse image($p<.001$),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p=.041$), major satisfaction($p<.001$), clinical practice(satisfaction)($p<.001$), and clinical practice(moderate satisfaction)($p=.002$). The construction of a multiple regression model revealed an adjusted R^2 of 0.56 with nurse image serving as the major predictor variable for nursing professionalism. In order to establish a proper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a multi-dimensional strategy is needed to develop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nursing education programs that can enhance the image of nurses and increase satisfaction with majors and clinical practice, and to establish a positiv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 **Key words:** Nurse Imag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s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C 도에 소재하는 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이며, 1개 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이수한 3, 4학년 간호대학생 234명이었다. 자료는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교육환경,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영향 요인은 간호사 이미지($p<.001$), 임상실습교육환경($p=.041$), 전공만족도($p<.001$), 임상실습만족도(만족)($p<.001$), 임상실습만족도(보통)($p=.002$)이었으며,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56.0%이고, 가장 큰 영향 요인은 간호사 이미지였다.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정립을 위해서는 간호사 이미지 향상과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과 및 비교과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임상실습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다차원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 **주제어:**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교육환경,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호대학생

- First Author: Mi-Sook Park, Corresponding Author: Mi-Jin You
- Mi-Sook Park (mspark@ut.ac.kr), Dept. of Nurs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 Mi-Jin You (mj_you@ok.ac.kr), Dept. of Nursing, ChungCheong University
- Received: 2026. 03. 09, Revised: 2026. 04. 09, Accepted: 2026. 04. 20.

I. Introduction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와 간호에 대한 신념, 관념, 그리고 인상의 총합으로 간호와 관련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하는 사람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직분에 관한 직업의식적 견해를 의미한다[1]. 건전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학 교육과정 이수 동안 성취해야 하는 중요한 학습성과 중 하나로, 전공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임상실습환경의 실무를 적절하게 연계함으로써 정립되어진다[2]. 또한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과 관련된 간호에 대한 동기 및 포부를 결정하고, 직업에 대한 지각, 신념, 태도를 정립하여 확고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세를 수립하는데 필요하다[3]. 그러나 간호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 탈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 중 하나가 간호사에 대한 정체성과 역할 혼란이 발생하여 적절한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려된다[4]. 간호전문직관은 단 시일내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이에 대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5]. 이에 간호대학생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계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간호 지식의 습득, 임상술기 능력의 숙련 뿐 아니라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사 이미지는 직업가치관과 함께 간호전문직관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6], 긍정적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3]. 간호사 이미지는 이론 및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간호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신념, 가치관 및 윤리적 표준을 내면화하면서 형성되고 변화하며[7,8],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긍정적 학습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9]. 간호사 이미지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으므로 간호교육과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 이미지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10]. 더구나 최근 의료환경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 또한 새롭게 재정립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원격진료, 환자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변화는 간호사의 업무방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미래에는 간호사가 단순한 보조자 역할을 넘어 의료서비스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11]. 이처럼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확대된 간호사의 역할에 따라 간호사의 이미지도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간호대학생들은 대중매체나 주변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이상화된 간호사 이미지'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므로 현실적 간호환경과의 괴리 속에서 혼란을 겪

는다. 이러한 시기의 직업 자기이미지 형성 경험은 간호전문직 정체성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므로[12],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하여 간호교육에 반영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다른 변인으로는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있다[13,14]. 임상실습교육환경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술을 습득하게 되며, 대상자의 간호 요구에 따른 간호과정, 간호중재 및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학습하게 된다[15]. 이러한 적절한 임상실습교육환경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16]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좋을수록 전문직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그러나 일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은 보통 정도의 긍정적 수준으로 보고되어[14,15,17], 현 시점의 임상실습교육환경에 대한 간호학생의 인식 수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역시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18]. 전공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는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에 대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며, 미래에 전문직 간호사가 되었을 경우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므로 이는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 의도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19,20]. 전공에 만족하는 간호대학생일수록 장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구체적인 진로에 집중할 수 있다[21].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22], 전공만족도[4,14,23], 임상실습교육환경[14,15,16,17], 임상실습수행능력[4,22], 임상실습스트레스[23], 임상실습만족도[23], 셀프리더십[17,24], 실습소속감[17], 학업적 자기효능감[24], 심리적 안녕감[24], 간호사 이미지[18], 간호사의 사회적 이미지[4]와 전문적 이미지[4]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간호대학생 1학년[24], 2, 3학년[4], 3, 4학년[14,22], 4학년[17,18,23]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과 여러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오늘날 사회에서 가치 체계의 급격한 변화는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 간호가 더 많은 윤리적, 철학적 도전에 직면하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전문적 간호가 요구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냈으며,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간호전문직관은 필연적이며 복잡하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과정이 된다[25]. 이를 근거

로 최근 보건의료계의 구조적 변동 및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수준과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시의적 타당성을 갖는다. 더구나 간호전문직관은 대학생 시기 동안 진행되는 전공교과목의 이론과 실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습득되어 미래 간호사의 전문직관으로 이어지게 된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1개 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 교육환경,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수준을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건전한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 교육환경,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교육환경,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교육환경,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II. Research Method

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교육환경,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수준을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Research Participants

연구대상자는 C 도에 소재한 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이며, 1개 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이수한 3, 4학년 간호대학생이다. 대상자수의 선정기준은 G*Power 3.1.9.2 프로그램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분석방법은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f^2)는 중간 크기인 0.15, 검정력($1-\beta$)은 .95, 예측 요인 10개를 기준으로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172명이 본 연구의 최소 연구대상자수로 산출되었다. 3, 4학년 전원 241명에게 자료를 배부하였고, 설문 응답이 불충분한 7부를 제외한 234부(94.1%)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Study Measurement Tools

3.1 Nurse Image

간호사 이미지 측정은 Yang[26]이 개발하고 Lee 등[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통적 이미지' 12문항, '사회적 이미지' 6문항, '전문적 이미지' 6문항, '개인적 이미지' 3문항으로 구성된 총 27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Lee 등[9]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3.2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임상실습교육환경 측정은 Dunn과 Burnett[27]이 개발하고 Han[2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직원과 학생과의 관계' 3문항, '병동 분위기' 3문항, '간호관리자의 수행' 5문항, '환자와의 관계' 4문항, '학생만족' 4문항인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총 19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Han[28]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3.3 Major Satisfaction

전공만족도 측정은 Illinois 대학에서 Braskamp 등[29]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를 Kim과 Ha[30]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학과(학부)만족 도구를, Kim과 Lee[31]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전공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전공학문에 대한 '일반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된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31]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다.

3.4 Nursing Professionalism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1]이 개발한 29문항을 Han 등[32]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축소한 1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5개 하위영역으로 '전문

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부정적 문항은 역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등[32]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4. Data Collection Method

자료수집 기간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동월 30일까지이며, 자료수집 전에 해당 대학의 간호학과장에게 연구목적, 방법 등을 설명하고 허락을 득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모집 문건을 작성하여 해당 대학 간호학과 게시판(오픈라인)에 공지하였다. 이후에 해당 대학 교원이 아닌 연구자가 강의실에서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또는 반별 전체 학생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구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설명문, 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학생은 설명문을 읽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면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0분~15분 정도 소요되었다.

5. Data Analysis Method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05에서 평가하였고,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9.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교육환경,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수준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교육환경,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교육환경,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분석하였다.

6. Ethical Consideration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 KNUT-2025-HR-32-47)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는 언제라도 연구에 대한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참여의 거절이나 철회로 인해 수반되는 불이익이 없고, 수집된 자료와 연구 결과의 분석은 학문적 목적에만 이용되며, 익명성 보장에 관해 설명서와 구두로 설명한 한 후에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III.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대상자의 연령에서 20~23세는 158명(67.5%), 24세 이상은 76명(32.5%)이었으며, 여자가 191명(81.6%)으로 남자 43명(18.4%)보다 많았다. 3학년은 109명(46.6%), 4학년은 125명(53.4%)이었으며, 종교는 없는 집단(155명, 66.2%)이 있는 집단(79명, 33.8%)보다 많았다. 학업성취도에서는 평균 평점 3.0~3.5 미만이 91명(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실습만족은 154명(65.8%)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전공 선택 이유로는 '취업 보장'이 116명(49.6%)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Level of Nurse Imag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Participants

1점부터 5점까지 분포하는 주요 변인들의 평균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간호사 이미지($4.25 \pm .5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4.09 \pm .66$)와 간호전문직관($3.96 \pm .46$)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임상실습교육환경의 평균은 $3.68 \pm .56$ 이며, 하위 영역 중 '학생 만족'($3.90 \pm .76$)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던 반면, '병동 분위기'($3.13 \pm .93$)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2).

3. Difference of Nurse imag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과 임상실습만족도가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구체적으로 4학년이 3학년보다 간호사 이미지($t = -2.03, p = .044$), 임상실습교육환경($t = -2.84, p = .005$), 전공만족도($t = -2.98, p = .003$), 간호전문직관($t = -2.69, p = .008$) 모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집단

Table 1. Difference of Nurse Imag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Nurse Imag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Age (years)	≥20~23	158(67.5)	4.25±.56	-.29		3.67±.57	-.61		4.01±.67	-2.43		3.94±.46	-.91	
	≥24	76(32.5)	4.27±.55	(.770)		3.71±.53	(.544)		4.24±.62	(.016)		4.00±.46	(.363)	
Gender	Female	191(81.6)	4.24±.56	-.82		3.66±.58	-1.39		4.07±.66	-.86		3.98±.47	.77	
	Male	43(18.4)	4.32±.50	(.415)		3.79±.44	(.166)		4.16±.69	(.390)		3.91±.45	(.441)	
Grade	3rd	109(46.6)	4.18±.60	-2.03		3.57±.60	-2.84		3.95±.72	-2.98		3.88±.49	-2.69	
	4th	125(53.4)	4.32±.50	(.044)		3.78±.50	(.005)		4.21±.58	(.003)		4.04±.42	(.008)	
Religion	Had	79(33.8)	4.23±.56	-.56		3.73±.57	.99		4.11±.67	.47		3.96±.51	.01	
	None	155(66.2)	4.27±.55	(.578)		3.66±.55	(.322)		4.07±.66	(.640)		3.96±.44	(.996)	
Academic achievement (Credit)	<3.0	28(12.0)	4.14±.63			3.63±.53			3.98±.68			3.87±.43		
	≥3.0~<3.5	91(38.9)	4.21±.59	1.40		3.67±.58	.20		3.97±.68	3.08		3.94±.49	1.68	
	≥3.5~<4.0	75(32.0)	4.28±.52	(.243)		3.69±.57	(.899)		4.14±.67	(.028)		3.96±.46	(.173)	
	≥4.0	40(17.1)	4.39±.46			3.73±.53			4.32±.63			4.10±.4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ied ^a	154(65.8)	4.35±.49	7.85		3.83±.51	16.64		4.26±.61	16.97		4.07±.43	17.40	
	Moderate ^b	69(29.5)	4.10±.61	(<.001)	a>c	3.41±.55	(<.001)	a>b,c	3.77±.62	(<.001)	a>b,c	3.82±.42	(<.001)	a,b>c
	Dissatisfied ^c	11(4.7)	3.91±.69			3.41±.56			3.67±.84			3.42±.54		
Motivation of major choice	Job guarantee ^a	116(49.6)	4.26±.58			3.65±.56			4.08±.65			3.98±.47		
	Advice from parents and neighbours ^b	53(22.6)	4.17±.59	1.57		3.62±.54	1.12		3.84±.68	5.11		3.90±.47	.40	
	My aptitude ^c	59(25.2)	4.29±.46	(.197)		3.78±.57	(.341)		4.29±.60	(.002)	d>b	3.99±.46	(.751)	
	Fitting to grades ^d	6(2.6)	4.65±.41			3.84±.66			4.44±.63			3.97±.36		

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든 주요 변인을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전공만족도에서는 24세 이상이 23세 미만보다(t=-2.43, p=.016),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부모와 지인의 권유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보다(F=5.11, p=.002)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이미지(r=.69, p<.001), 임상실습교육환경(r=.56, p<.001), 전공만족도(r=.60,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간호사 이미지와 임상실습교육환경이 긍정적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Table 3).

Table 2. Nurse Imag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234)

Variables	M±SD	Range	Min	Max
Nurse Image	4.25±.55	1-5	2.37	5.0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3.68±.56	1-5	2.11	4.95
Student Satisfaction	3.90±.76	1-5	2.0	5.0
Patient-Student Relationships	3.82±.66	1-5	2.25	5.0
Nurse Manager Commitment	3.81±.77	1-5	1.60	5.0
Hierarchy and Ritual	3.13±.93	1-5	1.0	5.0
Staff-Student Relationships	3.54±.85	1-5	1.0	5.0
Major Satisfaction	4.09±.66	1-5	2.06	5.0
Nursing Professionalism	3.96±.46	1-5	2.50	5.0

4. Correlations among Nurse Imag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Table 3. Correlations among Nurse Imag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234)

Variables	Nurse Imag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Major Satisfaction
	r(p)		
Nursing Professionalism	.69 (<.001)	.56 (<.001)	.60 (<.001)

5.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모두' 선택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학년(기준 범주: 3학년), 임상실습만족도(기준 범주: 불만족)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였으며, 이를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교육환경 및 전공만족도와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학년은 '4학년', 임상실습만족도는 '보통'과 '만족' 그룹을 각각의 범주형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지수를 이용하였으며, Durbin-Watson 지수가 1.941로 나타나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이다.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지수를 이용하였으며, VIF는 1.791~5.368로 기준인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간호사 이미지($t=7.91, p<.001$), 임상실습교육환경($t=2.06, p=.041$), 전공만족도($t=3.40, p<.001$), 임상실습만족도(만족)($t=3.56, p<.001$), 임상실습만족도(보통)($t=3.09, p=.002$)가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F=50.36, p<.001$). 즉 간호사 이미지($B=0.38$)와 임상실습교육환경($B=0.10$)이 긍정적일수록, 전공만족도($B=0.14$)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만족)($B=0.35$)와 임상실습만족도(보통)($B=0.31$)는 임상실습만족도(불만족)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지며, 이들 변인이 간호전문직관의 56.0%를 설명하고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간호사 이미지($\beta=.46$)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N=234$)

Predictor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p
	B	SE			
Constant	1.02	0.19		5.51	<.001
Nurse Image	0.38	0.05	.46	7.91	<.001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0.10	0.05	.12	2.06	.041
Major satisfaction	0.14	0.04	.21	3.40	<.00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0.35	0.10	.36	3.56	<.001
Clinical Practice (Moderate satisfaction)	0.31	0.10	.31	3.09	.002
Grade: 4th	0.04	0.04	.05	1.04	.300
adj $R^2=.560$, $F=50.36$ $p<.001$					

Durbin-Watson's $d=1.941$, ref: grade: 3rd=0, Clinical practice: dissatisfaction=0

IV.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교육환경,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수준을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는 평균 4.25점(5점 만점)으로 간호사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일 연구[6]의 4.12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8]의 3.71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측정 도구의 차이는 있으나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4]의 3.94점, COVID-19 유행 시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33]의 4.17점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2004년에 시행된 연구[9]의 3.40점, 2011년의 연구[18]의 3.71점, 2021년[33]의 4.17점으로 해가 갈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향상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임상실습교육환경은 5점 만점 중 3.68점으로 동일 측정도구를 활용한 다른 연구의 2.79점~3.47점[14,15,16,17,34]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임상실습교육환경의 하부 요인 중 '학생 만족'이 가장 높고, '병동 분위기'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인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들[14,17,35]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하부영역 중 가장 낮은 순위의 '병동 분위기'는 실습병동의 조직문화에 대한 것으로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은 병원 환경과 경직되고 관습적인 병동에서 적응하기 힘들 것이고, 이는 간호대학생이 실습과정에 있어서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28]. 또한 임상실습교육환경은 4학년이 3학년보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보통 이하 수준의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일 연구에서 실습량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임상실습교육 환경에 더 높은 점수를 보인 결과[17]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09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일 연구[14]의 4.15점과 비슷하거나 다른 연구[4,18,36]의 3.64~3.88점 보다 다소 높았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24세 이상이 23세 이하보다, 4학년이 3학년보다, 실습만족이 높은 집단이 보통 이하 수준의 만족집단보다, 전공선택이 성적에 맞추어서 입학한 학생이 부모님과 주변의 권유로 전공선택을 한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 연구[4]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0세 이하가 전공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다른 연구[36]도 진학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집단이 '가족의 권유'와 '졸업 후 취직이 잘되므로' 집단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96점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동일 측정도구를 사용한 일 연구[14]의 4.04점 보다 다소 낮았으나 다른 연구[22]의 3.92점과 비슷하거나 기타

연구[4,17,18,36]의 3.34점~3.81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은 4학년이 3학년보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보통 이상 수준인 집단이 불만족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전문직관이 전공교과목의 이론과 실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습득된다[5]는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일부 선행연구[22]에서는 연령이나 학년, 만족도 수준에 따라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연구 대상자의 분포와 대학별 간호교육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 환경 및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 이미지[4,6,18,33],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실습교육환경[4,14,17], 그리고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4,14,18,36]에서도 일관된 정적 상관성이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교육환경,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56%이고, 가장 큰 영향 요인은 간호사 이미지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 이미지를 핵심 예측 변인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6,17]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예비 간호사가 어떤 간호사상을 가지고 출발하는가는 단순한 직업 인식의 차원을 넘어, 이후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간호전문직 정체성은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자기인식과 가치 내면화를 통해 발달하며, 초기 단계에서 형성된 간호사 이미지는 진로 선택, 학업 몰입도, 실습 태도, 직업 지속의지 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므로[37], 긍정적 간호전문직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 영향 요인은 전공만족도로, 이는 간호전문직관의 구조모형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교육환경, 임상수행능력이며,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수행능력을 매개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14]와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전공만족도를 보고한 연구[4,18]와 유사하였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전공만족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수시로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파악하여 개선점을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 영향 요인은 임상실습만족도였다. 이는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보고한 연구[23]와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임상실습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나타낸 연구[38]와 일치하였다.

네 번째 영향 요인은 임상실습교육환경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14,17]와 일치한다.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보통 수준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되었다. 간호교육자들은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간담회, 현장지도자 오리엔테이션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대학생들은 낮은 환경, 비교육적인 실습환경, 자신감 결여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39]. 특히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임상실습교육환경의 중요성으로 비추어 볼 때, 간호교육자와, 실습기관 모두의 협력을 통해 임상실습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최근 보건 의료 정책의 전환기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임상실습을 1개 학기 이상 경험한 3, 4학년의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교육환경,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수준과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개별 변인의 단편적인 영향보다 여러 변인들의 영향에 의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즉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전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를 높이며, 만족스러운 임상실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가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에 대한 심리적 수용성을 높이고, 이것이 다시 내면화되어 간호전문직관이라는 직업적 가치관으로 확립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 이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도 올바른 직업 이미지 형성이 전공몰입과 전문직 정체성을 연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보건의료계의 특정 변동 시기에 자료가 수집되었으므로, 향후 다기관 연구를 통한 반복 검증 및 시계열적 변화를 반영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예비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교육 환경,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수준과 이들 변인들이 간

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은 대체로 높은 수준이나 임상실습교육환경은 보통 이상의 긍정적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교육환경,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만족이었으며, 가장 큰 영향 요인은 간호사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정립을 위해서는 간호사 이미지 고취와 전공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과 및 비교과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긍정적인 임상실습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학생 중심의 실습 환경 개선과 대학-실습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및 다차원적인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ACKNOWLEDGEMENT

This was supported b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in 2024.

REFERENCES

- [1] Ejeun, Ymkwon, and Oh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October 2005. DOI: 10.4040/jkan.2005.35.6.1091
- [2] J. Keeling, and J. Templeman. "An exploratory study: student nurses' perceptions of professionalism," Vol. 13, No. 1, pp. 18-22, January 2013. DOI: 10.1016/j.nepr.2012.05.008
- [3] Gmlim, and Ejj,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556-566, 2016. DOI: 10.5762/KAIS2016.17.4.556
- [4] Hjjang, "Effects of Image of Nurse, Clinical Performance,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7, No. 3, pp. 635-648, 2020. DOI: 10.12925/jkocs.2020.37.3.635
- [5] Hrpark, Hjj, and Mkban, "The Effects of Transitional Shock and Incivil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7, No. 1, pp. 78-86, May 2021. DOI: 10.14370/jewnr.2021.27.1.78
- [6] Ymjang, "The Influence of Nursing Image, Job Valu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First Year Nursing Student,"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 17, No. 3, pp. 31-38, 2019. DOI: 10.22678/JIC.2019.17.3.031
- [7] Jchoi, and Nsha,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5, No. 1, pp. 54-63, March 2009.
- [8] Jyno, Sjpark, and Dyba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and nurse's ima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8, No. 2, pp. 88-94, December 2012. <http://www.ewnri.or.kr/>
- [9] Shlee, Sykim, and Ja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0, No. 2, pp. 219-231, 2004.
- [10] Mhkwon, and Yekwon, "A Q-methodology Study on the Nurse's Image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SSSS*, Vol. 29, No. 14, pp. 29-48, December 2014. UCI : G704-001986.2014..29.002
- [11] Nursing Trend 2025, "How will the future nurse's appearance change?," *Nursing Trend Blog*, https://blog.naver.com/nurse666_/223848233538
- [12] Jwoon, and Njje, and Mrpark, "Exploring First-year Nursing Students' Vocational Self-image of Nurses Through a Drawing Activity,"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 7, No. 5, pp. 21-735, 2025. DOI: 10.62783/SHSS.7.5.46
- [13] Mkjeon, and Myhan, "The relationship among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incivility, emotional intelligence,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19, pp. 949-964, 2019. DOI: 10.22251/jlcci.2019.19.19.949
- [14] Seja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Nursing Students's Nursing Professionalism," *Doctoral Dissertation Thesis*, Inje University, 2021.
- [15] Ekle, and Ejj,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Attitude toward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3, No. 2, pp. 126-135, May 2016.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6.23.2.126>
- [16] Jyhan, and Hspark, "Effects of Teaching Effectiveness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8, No. 3, pp. 365-372, August 2011.
- [17] Chkim, and Jykim,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Learning Environment, Self-leadership, and Clinical Practice Belonging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5, No. 1, pp. 5-16, February 2019. DOI: 10.5977/jkasne.2019.25.1.5
- [18] Ysham, Hskim, Ischo, and Jylim,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536-544, December 2011.
- [19] D. Barron, E. West, and R. Reeves,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and Policy*, Vol. 12, Suppl(1-S1), pp. 46-51, April 2007. DOI: 10.1258/135581907780318419
- [20] Yskang, and Skhwang,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7, pp. 3301-3309, 2013. DOI: 10.5762/KAIS.2013.14.7.3301
- [21] Iomoon, and Kw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83-91, June 2010. DOI: 10.5977/JKASNE.2010.16.1.083
- [22] Ayjo, "Factors Influencing on Nursing Profession of Nursing Students in the Post-Corona Era," Master's Thesis, Changshin University, Changwon, 2023.
- [23] Shlee,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atisfaction o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2016.
- [24] Jhkwon, and Bschoi,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rofessionalism - For First Grade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5, pp. 297-304, 2020. DOI: 10.14400/JDC.2020.18.5.297
- [25] F. Ghadirian, M. Salsali, and M.A. Cheraghi, "Nursing professionalism: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Iranian Journal of Nursing and Midwifery Research*, Vol. 19, Issue. 1, pp. 10, January-February 2014.
- [26] Isyang,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4, No. 2, pp. 286-306, 1998.
- [27] S.V. Dunn, and P. Burnett, "The development of a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scal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22, No. 6, pp. 1166-1173, December 1995. DOI: 10.1111/j.1365-2648.1995.tb03119.x
- [28] Jyhan,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2, Issue 5, pp. 2595-2607, October 2010. UCI : G704-000930.2010.12.5.016
- [29] LA. Braskamp, SL. Wise, and DD. Hengstler,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part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1, No. 4, pp. 494-498, 1979. DOI:10.1037/0022-0663.71.4.494
- [30] Khkim, and Hs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pp. 7-20, 2000. UCI 1410-ECN-0102-2014-300-001738894
- [31] Djkim, and Js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244-254, May 2014, DOI: 10.5977/jkasne.2014.20.2.244
- [32] Sshan, Mhkim, and Ekyeu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4, No. 1, pp. 73-79, June 2008. DOI: 10.5977/JKASNE.2008.14.1.073
- [33] Oslee, and Jhlim, "Image of nurs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5, pp. 479-488, 2021. DOI: 10.14400/JDC.2021.19.5.479
- [34] Hkyang, "The Effect of Practical Education Environment And Practical Stress Perceiv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on Department Adapta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10, No. 2, pp. 43-49, March 2024. DOI: 10.17703/JCCT.2024.10.2.43
- [35] Emkwak, Hjyun, and Mapark, "Effects by Incivility Experienced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f Nursing Students on Clinical Practice Str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2, pp. 160-168, 2021. DOI: 10.5762/KAIS.2021.22.2.160
- [36] Mocho, and Khbaek,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Policy*, Vol. 2, No. 1, pp. 37-44, 2023. DOI:10.23149/JDP.2023.2.1.037
- [37] M. Johnson, LS. Cowin, I. Wilson, and H. Young, "Professional identity and nursing: contemporary theoretical developments and future research challenges," *Internationsl Nursing Review*, Vol. 59, No. 4, pp. 562-569, December 2012. DOI: 10.1111/j.1466-7657.2012.01013.x
- [38] Ihpark, "The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f Adult Learners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stitution,"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Vol. 15, No. 1, pp. 81-88, 2023. DOI: 10.14702/JPEE.2023.081
- [39] J. Curtis, I. Bowen, and A. Reid, "You have no credibility: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horizontal violenc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7, Issue 3, pp. 156-163, May 2007. DOI: 10.1016/j.nepr.2006.06.002

Authors



Mi-Sook Park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Nursing from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d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 1983, 1992 and 2001, respectively.

Dr. Park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Korea in 1997.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She is interested in nursing education, geriatric nursing and clinical nursing practicum of nursing students.



Mi-Jin You received the M.S. degrees in Education, and Ph.D. degrees in Nursing from Konkuk University, Korea, in 2011 and 2019, respectively.

Dr. You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ChungCheong University, Cheongju, Korea, in 2020, and is currently an Associate Professor there.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nursing education and psychiatric nursing, with a specific focus on bullying, addiction, suicide, and self-injury.